

4.13 선거 RUN·RUN·RUN

김윤덕 예비후보, 12일 선거사무실 개소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예비후보로 활동 중인 김윤덕 의원이 오는 12일 '더불어캡트'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마련한다



김 의원은 "이번 4.13 총선은 전북 정치가 미래로 전진하느냐? 아니면 과거로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정치가 아니라 개인영달을 위한 한의 정치, 마지막이라며 동정에 호소하는 정치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바람에 의지하는 과거의 정치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개소식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비롯해 더민주 전라기원본부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더민주 전북도당 총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부족함이 많지만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권여당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을 저지해야 테러방지법을 개정해 국민의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지키고 언론의 공정성, 국정원과 검찰 등 국가권력기관의 중립성을 철저히 확보해 2017년 정권교체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형재 예비후보 "시민의 힘으로 총선 승리 이룩"

9일 최형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전주 을)는 시민의 힘으로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룩하겠다고 믿음을 다짐하고 나섰다.



최 예비후보는 자신을 "현직 국회의원과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되었지만 깨끗한 후보, 약속을 지키는 더민주 후보로서 경선에서 승리해 4.13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있는 후보"라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그동안 지역 토박이로서 오랜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애환과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후보로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동안 선의의 경쟁을 펼쳐 온 최인규 후보와 박종덕 후보에게도 아쉬움과 격려를 표한다"며 "기필코 승리해 두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의 꿈과 희망을 대신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더민주-국민의당 물리칠 수 없는 격전 예고

Report 제20대 총선 격전의 현장을 찾아 - ②전주 을

전주 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정당 간 당 문제를 걸고사라도 절대 밀릴 수 없는 전국 격전지 중 하나다.

절대강자 없는 전주 을에서의 새누리당 반란 가능성도 관전포인트다.

입지자가 많아 최고 경쟁률은 물론 신당세력 연이은 합당 결정에 후보군들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지지율, 인물, 정치철학 면에서 전주 을 지역구 민심이 어느 한쪽으로 모아지지 않아 각 정당은 물론 예비후보자 내부 정책입안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전북지역 1차 경선 선거구 9곳을 확정했다.

전주 을과 익산 갑, 완주·진안·무

주·진수 선거구가 이에 포함된다.

당초 전주 을에서는 이상직(53) 현 국회의원과 최형재(53)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최인규(61) 전북노동복지센터 이사장, 박종덕(57) 전북학원연합회장의 경선이 예상됐다.

그러나 더민주 중앙당의 1차 경선 선거구 확정으로 이상직 현 의원과 최형재 예비후보 간 경선으로 압축되는 모양새다.

더민주 중앙당은 최인규 예비후보와 박종덕 예비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제동을 걸며 자체 교섭정리내 나선 셈이다.

국민의당 간판을 내건 입지자들은 더욱 치열하다.

장세환(63) 전 국회의원과 김호서(50) 전 전북도의회 의장, 엄윤상 변호사(50), 조형철(51) 전 도의원 한명규(60) 전북

더민주, 이상직-최형재 압축 최인규·박종덕 행보에 제동

국민의당 예비후보자 5명 공천 놓고 치열한 싸움 예상

새누리 정운천 반란 가능성

도 전 정부부지사까지 5명이다. 앞으로 이들 간 공천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계파별 공천을 싸움과 지분 다툼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가장 먼저 국민의당에 몸을 담고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나선 엄윤상 변호사는 '인물론과 참신성'을 무기로 새정치를 주장하는 당 노선과 부합되면서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장세환 전 의원은 박주선 의원 김호서 전 의장은 천정배 의원 인재영입 케이스로 입당한 한명규 전 부지사 등은

각각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상된다. 견토지쟁의 운까지 더해질 경우 새누리의 파란도 눈여겨볼 수 있다.

새누리당 정운천(62)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새누리당이 당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민본치 당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정 전 장관은 38%를 득표하며 민주당 후보를 턱밀까지 추격했으며, 꾸준히 30%대 견고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도내 고정 지지율까지 가세될 경우 도내 최초 새누리당 의원 당선 가능성 관련 이야기가 호시강령의 입에 심심찮게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26~27일 뉴스 전북취재 본부가 완산을 유권자 68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운천 전 장관은 27.1%를 얻어 이 지역 현역인 더민주 이상직 의원(28.8%)을 앞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거없는 낭설만은 아니다.

유희태 예비후보, 무주지역 정책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국회의원 예비후보(완주진무장)는 9일 무주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힐링 스테이 조성 등 동부권 대한민국 관광중심·태권도 특구 무주에 대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유 예비후보는 산림자원 활용한 가능성 산 채류 및 약용작물 생산 단지 조성, 내도리 명품 관광지 육성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조기 완공지원, 무주-진안-장수 간 대중교통 신규 연결축 조성 추진, 세계태권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계태권도대회성공개최지원법(가칭) 제정 등을 내세웠다.

안호영 예비후보, 완주지역 맞춤형 공약 내걸어

안호영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완주진무장)는 9일 완주를 '5만 도농 복합 자족도시'로 건설하고 '신성장 활력 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역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안 예비후보는 지역 내 100년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한 ▲완주 산단 탄소밸리 유치 ▲R&D 중심의 아시아 농생명 클러스터 조성 ▲혁신도시 내 국제금융허브 개발 등의 경제 공약과 ▲완주교육청 이전 및 완주수방서·등기소 신설 ▲경찰 지구대 및 치안센터 확충 등 자족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또, 교육분야 공약으로 ▲우수기업 취업 연계 미이스터고 유치 등을 내세웠다.

강팔문 익산시장 예비후보, 산단 활성화 제시

더불어민주당 강팔문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8일 익산의 최대 현안 과제인 산업단지 분양과 기업 유치 문제를 해결해 이를 미래성장 동력화 하는 내용의 산단 활성화 공약을 제시했다.



강 후보가 제시한 산업단지 문제 해결의 핵심 내용으로 ▲취약한 접근성 강화 ▲입주 기업의 입주조건 대폭 개선 ▲공격적 마케팅 등을 내걸며 익산 3~4 일반산단 입지의 취약한 접근성과 기업의 입주 조건을 개선,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와의 관련 IH공사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기업 유치를 새로운 방안을 모색,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것을 약속했다.

Sketch 도의원 예비후보들의 재보선 출사표 - 전주 2 선거구

“저를 믿어주세요 지역발전 위해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제20대 총선에서 도의원 재보궐선거는 규모가 작고 국회 의원 선거와 비교해 득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많지 않다.

하지만 이들 역시 지역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들로서 작거나 민심을 확인하는 단초가 된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주단, 국민의당 임병남, 오종려, 이도영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조주단(평호·1·2동, 서서학동, 등서학동) 재도궐 선거구에 출마한 최주단, 임병남, 오종려 후보를 만났다.



더민주 최주단 예비후보

“당을 지켜온 토박이로서 지역발전에 큰 일 하고파” 소외된 시민 위한 역할 강조

▲최주단 예비후보, “신의를 열정으로 준비된 도의원”

최주단 후보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김광수 전 도의장에게 아쉽게 패했지만 철저부심,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정말 일하고 싶다. 마침 기회가 주어져 이렇게 보낼 선거에 나서게 됐다. 곳곳이 민주당을 지켜온 토박이로서 지역발전에 누가 필요한 사람인지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의 요즘 하루는 오전 5시부터 시작해 오후 11시에서야 마무리 된다.

그는 전주 평화동 사거리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옷을 걸친채 유권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넨다.

행인들은 이런 그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출마한 만큼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도의원이



국민의당 임병남 예비후보

“소통남으로서 주민 의견 수렴 진솔하게 의정에 임할 것” 장애인 체육시설 조성내걸어

곳도 없다. 상권을 뒷받침하지 못하니 슬럼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민이 행복해지고 전북이 강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병남 예비후보,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

소통 남(男)으로서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주민에 의견을 수렴, 도정에 임하겠다는 임병남 후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을 시작으로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 마을가꾸기 등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온게 어느덧 25년이 됐다.



국민의당 오종례 예비후보

“지역민 위한 정치는 행동으로 주민 애로사항 케치가 중요” 지역구 누비며 재기회 호소

이런 임 후보는 “주민들의 얘기를 듣는게 배움의 과정이다 생각하고 진솔하게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이 첫 정치 도전이다.

임 후보는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1당 구조 체제가 지속돼 왔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의회에 진출한 만큼 행정 경제나 선심성 행정 등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번 출마는 이러한 패권주의 지방 정치를 깨기 위한 것”이라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하면 지역의 반이 소위 적이 된다는 것도 안다. 이는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통남을 캐피플레이’로 걸었다. 선거때만 굶주리며 인사하는

정치인이 아닌 주민과 함께 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장애인 전용 체육 재활공원 조성, 장애인 복지문화센터 건립, 평화동 복합형 주민센터 건립, 도시가스공급 확대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오종례 예비후보, “꽃심으로 활짝피는 지역살림”

전주시의회 5. 6대 시의원이었던 오종례 후보는 협동과 순환경제로 지역살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8세 나이로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 최연소 여성의원으로서 타이틀을 거머쥐고 정치권에 돌입했다.

특히 그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으로 일 잘하는 여성위원상을 구현하기도 했다.

오 후보의 꽃심에는 대단한 의미가 숨겨 있다. 척박한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꽃을 피우려는 지극한 생명력! 그 마음으로 지역을 위해 진심으로 일해 보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지역민들을 위한 정치는 말로 하는게 아니다”며 “시의원을 하면서 느낀건 주민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불편함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경선 통과라는 부담은 있지만 주민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고들 말을 한다.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잘 되지 않겠냐”고 했다.

기성정치 타파를 위해 나선 국회의원 출마가 무모한 도전이라는 질책을 받았지만 중앙정치로 나서는 새 볼파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 지역구 민심은 아직까지 오 후보에게 우호적이다. 그는 홀로 지역구 구석구석을 누비며 재기회를 호소하고 있다.

오 후보는 또 “아침 일찍 주민들과의 만남을 위해 거리에 나서지만 시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르며 꽤 지리잡기가 쉽지 않다”며 “하지만 뛰는 만큼 인지도와 지지도가 만들어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광명 기자